

SSK 동아시아지역질서연구회 초청강연

“주변의 이론 - 지식생태학과 라틴아메리카”

연사: 김은중(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 연구교수),

사회자: 전재성(서울대 외교학과)

일시: 2014년 9월 30일(화) 4:00 - 6:00

장소: 서울대 사회대 소회의실

<강연>

김은중: 라틴아메리카연구소에서는 21세기 라틴아메리카와 트랜스모더니티를 HK 연구 아젠다로 삼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트랜스 모더니티는 유럽중심주의적 근대성에 대한 대안모색이 숨겨져 있다. 연구소의 구성원들이 한 가지 목표나 방향성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라틴아메리카에서 90년대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중대하게 인식되고 있다. 그런 중대한 변화들 속에서 라틴아메리카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SSK 동아시아연구회 프로젝트의 주제 역시 국제정치학적 ‘주변’이다. 제목과 같이 ‘주변의 이론’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라틴아메리카의 이론이 있는가? 라틴아메리카에 사는 사람들이나 지식인들, 외부에서 라틴아메리카를 보는 사람들도 라틴아메리카에서 이론이 나올 수 있는가? 종속이론, 해방신학 이외에 라틴아메리카의 자생적 이론이나 라틴아메리카가 오랫동안 역사 속, 억압 속의 억압에서 어떤 배양의 역할을 했는지? 중대한 역할을 했으나 잊히기도 했다. 90년대 냉전의 종식 이후의 문제에 있어선 종속이론, 해방신학 등이 크게 생명력을 갖지 못한 느낌이 드는데 그런 모색의 과정에서 저를 초청해주시고, 저의 논문을 보시면서도 탈서구주의의 문제를 주목하신 것 같다. 연구소에서도 라틴아메리카에서 나오는 것들을 주목하고자 하는데 오늘은 라틴아메리카의 사회변동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라틴 아메리카에 일어나는 일들을 대안 모색의 차원에서 말씀 드리고자 한다.

90년대 냉전의 종식 이후,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예외적으로 사회변동들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변동들은 시대적 분기점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으나, 우리는 여전히 시대적 분기점으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1994년 1월 1일 멕시코에서 사파티스타(Zapatista) 농민 봉기가 일어났다. 그 날은 미국-멕시코의 NAFTA가 발효된 날이었다. 파장이 굉장히 컸고, 치아파스(Chiapas) 지역의 농민들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계를 향해 선언문 등을 제시하였고, 멕시코 정부에 대한 비판과 저항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투쟁이고 500년 투쟁의 역사라는 스케일이 큰 이야기를 던졌다. 그러나 원주민 봉기는 크게 주목을 끌지 못했고, 착산 속의 돌풍처럼 금방 진압되고 파장이 없었을 것이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등장하고 경제위기가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로 가면서 라틴아메리카의 경제적 상황 변화가 세계체제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는 것이 인식되었다.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적 변동을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주목하면서 연구자들은 사회주의의 재발명 또는 1970년대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 경제위기가 파생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1972년 시카고학파가 등장한 시점부터 신자유주의는 이미 라틴아메리카에 적용되었다. 우리(한국)에게는 아직 상상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이 가장 강도 높게 적용되었고 가장 먼저 파산신고를

하였다. 우리는 90년대 중반 이후 신자유주의 논의했는데 라틴아메리카에서는 90년대 초반부터 논의가 시작되면서 신자유주의 파산, 붕괴라고 명명하였다. 또 다른 자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 새로운 민주주의의 발명, 새로운 발전 개념의 발명의 가운데 있으며, 그 전까지 유럽으로부터 수입된 자유주의, 대의민주주의를 기초로 하는 사회가 총체적 위기, 붕괴라고 평가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러한 세 차원의 양상이 다 겹쳐져 있었다. 또한 대항헤게모니 운동들이 등장하였는데 90년대 이후 상황으로 논의하면 사회정치문화 변동에서 사회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9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싸워야 할 이념도 사라지고 사회운동이 가라앉게 되었다. 반면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사회운동이 적극적으로 발생하였다. 그리고 '원주민'이 등장하였다. 원주민이라고 이야기하면 인종적 차원으로 이야기하거나 또는 계급, 계층적으로는 농민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원주민이 사회운동의 중심에 선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안데스 지역에 원주민 비율이 높고, 멕시코 과테말라, 마야 문명권에서도 높은 비율을 보인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 중의 하나이다. 당시 대항헤게모니 운동들이 무엇을 주장하면서 등장하였는지에 대해선 논문에 다루었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은 21세기 사회주의를 국가상 및 정책으로 내놓았다. 그리고 '다국민성' '복수국민성'이 제시되었다. 원래 국가, nation-state는 단일 민족, 단일 국가를 주장하는데, 에콰도르, 볼리비아는 '복수국민성'을 주창하였다는 점도 중대한 사건이다. '다문화성'을 넘어서 '상호문화성(inter-culturality)'을 강조한 이유는 다문화성은 척도가 되는 지배적 문화가 있고, 다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와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직접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등을 주장하는 격렬한 사회운동들이 진행되었다. 초기엔 무자비한 진압이 있었으나 최근엔 시위를 선전하고, 시위문화가 자리잡게 되었으며 중요한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간주된다. 에콰도르에서는 시민혁명, 에콰도르, 볼리비아에서는 헌법에 원주민어를 등장시켰다. '수마콰마네(Suma Qamaña)'는 좋은 삶, 영어로는 wellbeing 또는 collective wellbeing 정도로 번역되는데 의미전달의 한계가 있다. 내용적으로는 자본주의 세계체제를 무시하는 듯한 내생적 발전, 영토성에 대한 강조, 포스트 리버럴 사회를 지향하는 탈식민적 기획 등을 포괄한다. 'de-colonial' 이라는 말도 라틴아메리카의 post-colonial 연구와 차별짓기 위해 등장하였다.

다양한 슬로건들이 등장하였고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쪽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우파 쪽의 시각에서는 좌파로의 전환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온건 좌파, 강경 좌파, 육식 좌파, 채식 좌파, 에스프레소 좌파, 카푸치노 좌파 등으로 지칭한다. 미국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이러한 좌파노선에서 에콰도르, 볼리비아는 악성 좌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지칭된다. 브라질의 룰라, 아르헨티나, 칠레의 여성 전 대통령은 온건좌파 정도로 지칭되었다. 그러나 좌파로의 전환이라는 표현은 다양한 슬로건들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구시대적 분류가 된다. 기존의 사회적, 사회학의 이론으로 설명하려는 시도 중에서도 주변부에서 너희들이 뭔가 있는가라는 비아냥도 섞여 있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편집장은 볼리비아의 원주민 운동을 보고 원주민 운동도 좌파운동에 합류했다고 폄하하였다. 미놀로는 유럽의 구좌파가 원주민 운동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하면서 원주민 운동이 구좌파가 이야기 한 것보다 더 근본적, 변화가 큰 이야기를 하는데 이를 잘 모른다고 반박하였다. 새로운 운동들이 이전의 맑스주의적 운동들을 뒤엎는 것은 아니나, 그것만으로 다 설명되지는 않는다. 라틴아메리카의 사회적 양극화, 사회적 배제가 두드러지면서 현상 타파적이거나 한물 간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 중심적인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의 측면으로는 좌파가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다. 또한 노동, 사회운동에서 무시하는 상황도 아니다. 따라서 이를 일괄되게 적용하는 것은 잘못되었고 사례마다 적용해야 하는데 사실 현

재의 라틴아메리카의 변화에서 이러한 투쟁의 성격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페루의 사회학자 미놀로는 자신의 책의 한국어 번역본 서문에서 “라틴아메리카의 것은 투쟁과 선택이다. 투쟁은 투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기로에 있다. 유럽적인 것을 계속 쫓아갈 것인가, 우리의 길을 갈 것인가.”라고 하였다. 그리고 미놀로는 사람들이 ‘식민성’이라는 것을 잘 이야기 안 하는데 지식의 식민성이 권력의 식민성이라고 강조했다. 식민성이란 식민주의가 끝난 이후에도 모든 구조적 차원에서 작동하는 식민성인데 이는 푸코가 논의한 생명관리 권력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여러 다양한 사회운동 및 국가사회운동이 주축이 된 사회운동에서 공통적으로 추출될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의 심화이다. 직접민주주의, 브라질에서의 주민참여 예산심의제 등은 중대한 실천이라는 것이다. 사회운동의 방식을 사회적 혼란으로 본다면 다르지만 직접민주주의의 실천으로 본다면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 또한 반 신자유주의적 정치적 기획, 다문화적, 복수국민국가적인 국가재건의 문제가 등장하였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의 밑바탕의 발전담론에 대한 비판과 대안 모색이 이루어졌으며 민중이 중심이 된 사회운동, 신자유주의 이후 국가기능의 약화 속에서 국가가 개혁의 중심으로 등장하는 예외적 현상, 그리고 반미, 반제국주의는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중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것들이 라틴아메리카 사회정치 변동의 공통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정리해서 말하면 첫째, 라틴아메리카의 정치, 사회변동들은 최근 신자유주의 경제개혁, 소위 세계화의 결과물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개혁이 가장 맨 처음 강도 높게 적용되었고, 가장 파괴, 붕괴 양상이 나타났다. 신자유주의 경제위기가 사회변동으로 드러난다. 둘째,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로서 사파티스타 봉기 등 이를 500년 투쟁의 결과라고 이야기 한 것은 유럽중심적 근대성 위기 및 근대 프로젝트의 문제와 연관된다는 것이다. 왜 원주민인가라고 물으면 그들이 그 땅의 주인이었고 유럽인들의 침입의 피해자였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가 겹쳐있는데 하나는 작은 원, 다른 것은 큰 원이며 여기에 근대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즉, 라틴아메리카를 볼 때 근대성을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의 위기를 이야기한다면 포스트 네오리버럴(post-neoliberal)라고 할 수 밖에 없다. ‘post’의 의미가 ‘이후’인가 ‘극복’인가라고 할 때 어쨌든 ‘post-neoliberal’과 ‘post-modern’이다. 하지만 포스트모던은 유럽에서 나온 모더니티에 대한 비판, 극복이었으므로 라틴아메리카에서는 de-colonizing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하버마스는 여전히 근대기획의 미완성이라고 하는데 미완의 기획은 근대성이 아니라 탈식민성이다. 탈식민성을 한 뒤에 근대를 이야기해야지 식민성을 뒤에 감추고 근대성의 부작용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논문에서는 탈식민성을 이야기하고자 했는데 이미 이에 대해선 다양하게 논의되었지만 상당히 설득력을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중심부의 학자들이나 중심부의 것들을 수용하는 사람들은 라틴아메리카의 비판적 담론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자꾸 설명을 더 해주고 변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상황이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좌파로의 전환’이라고 하고 베네수엘라, 차베스라는 예외적인 정치가가 등장해서 많은 논란, 논쟁의 중심에 놓이게 된다. 21세기 사회주의의 등장 또는 유럽에서 실패한 사회주의가 여기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이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한국에서도 관심을 보였다가 시간이 지나자 별거 없다고 평가받기도 하고 비판의 화살이 차베스에 대한 이상한 조명으로 가게 되었다. 유치원 교사 등 이상한 수식어가 동원되는 차베스 흠집 내기가 등장하였다. 하지만 차베스가 중심인 베네수엘라는 21세기 사회주의를 내세우면서 다양한 미션 등을 내세웠다. 민중들을 위한 민중무역 거래 등으로 미국의 NAFTA에 반대하였다. 차베스의 21세기의 사회주의는 포스트 자본주의이

다. 어떤 학자가 '여기서 post는 이후 또는 극복 등으로 해석되기 보다는 post의 뒤에 붙는 것을 하나의 척도로 적용되는 것은 안 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는데 여기에 동의한다. 즉 post-capitalism은 자본주의가 유일한 경제적 방식이라는 것에 대한 반대이며 사회주의, 민중 거래 등도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경제들이 다 같이 있는 것이지 자본주의만 유일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후나 극복이든 직선적 역사주의의 극복에서는 같다.

에콰도르의 경우엔 석유, 가스도 많이 내장되어 있고 에콰도르 대통령은 발전주의를 계속 지향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에콰도르 원주민 동맹이 70년대부터 강력한 사회운동의 거점으로 등장했고, 정치변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다르나, 정치권력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발전주의를 포기할 수 없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neo-developmentalism 인가? post-developmentalism 인가? 그 안에서 갈등을 겪으면서 나온 것이 에콰도르 사태이다. 원주민들의 생활터전에서 대규모의 유전이 발견되었고 에콰도르 대통령은 이를 개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대신 전세계로부터 잠재적 개발이익의 몇 퍼센트를 자신들에게 달라고 하였다. 베네수엘라, 볼리비아에서는 국제적인 기후환경회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한 것처럼 선진국에서 하는 것들은 모두 밑의 국가에게 떠넘기기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유개발 안하겠다고 하는 대신 수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 개발이익의 몇 퍼센트를 달라고 한 것이다.

볼리비아는 에콰도르와 유사하면서도 다르다. 볼리비아는 수마콰마네(Suma Qamaña)라고 제헌헌법에 자신들의 우주관을 담았다. 동시에 경제개발 7개년 계획도 세우고 있다. 볼리비아는 19세기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전체가 독립하고 nation-state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지상의 과제로 받아들인 리버럴리즘에 대한 비판 즉 post-liberalism과 de-colonialism을 주장하고 있다. 자신들의 우주관은 주체가 타자를 규정하는 방식이 우주관이라는 것이며, cosmology란 타자가 인간 차원만이 아니라 비인간도 포괄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근대성의 문제가 근대적 우주관의 등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전재성 교수님의 논문 중 국제정치학 존재론, 인식론 논쟁에서 이러한 논의와 합류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라투르(Bruno Latour)의 저서들 등 이런 네트워크 이론이나 행위자-네트워크 이론 등은 근대적 우주관이 관계론적 우주관으로 넘어가는 것 이야기하고 있다. 볼리비아의 사상도 관계론적 우주관을 깔고 있다. 관계론적 우주관의 대전제는 근대적 우주관으로 등장한 유일한 자연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것이다. 자연과학이라는 자연과 문화-사회라는 것으로 내려온 것이다. 라투르는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었다>에서 리바이어던과 공기펌프에 대해 이야기한다. 17세기 근대적 우주관이 등장하면서 '자연'과 '문화'가 구분되었고 '자연'은 실험실 과학자들이 설명하는 것이 되었으며, 홉스가 이야기한 '정치'는 인간사회에만 적용되었다. 마찬가지로 데카르트의 근대 주체는 주체-공동체의 분리를 진행시켰다. 이는 라틴 아메리카 등장부터 우리-그들의 분리가 시작된 것이다. 이런 자연과학적 이론화를 할 수 있는 유럽중심적 근대성, 과학적 지식, 도구적 합리성을 갖는 것은 '우리'이고 '그들'은 야만, 미개, 저발전으로 분리되게 되었다. 칼 슈미트가 이야기하는 우리/그들, 적/동지의 이분법의 뿌리도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포폴리즘'도 라틴아메리카에서 민주주의와 적대되는 개념으로 논의된다. 민주주의와 대비되는 부작용으로 이야기하는 포폴리즘의 중요 케이스로서 라틴아메리카의 페로니즘 등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는 다 잘못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포폴리즘의 반대는 'elitism'이다. 라틴아메리카의 엘리트는 헤게모니를 가진 선진국의 엘리트와 같으며 주변부의 엘리트와 같지 않음다. 엘리트는 지배권력이었고, 라틴아메리카의 식민지 시기의 독립은 그들의 지배계급이 되는 '크리오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들은 유럽, 미국인과 같은 사람이다. 따라서 끝없이 정의되지 않고, 부각되

지 않았던 것은 민중이고, 민중의 제일 밑이 원주민이다. 정치의 왜곡이 포퓰리즘이 아니라 페론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민중을 부각시키려고 했던 사람이고 차베스도 마찬가지이다.

저의 논문 두 편에서는 이 뒤의 문제는 이야기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근대성, 유럽중심주의적 근대성을 이야기하는 라틴아메리카는 무엇인가? 근대성/식민성 연구그룹이 라틴아메리카, 미국 학자들 중심으로 등장했는데 그들이 논의하는 것은 유럽중심적 근대성은 전지구적 국가들이 따라가야 할 흠 없는 기획이 아니다. 근대성은 식민성과 나란히 출발했다. 근대성을 논의한 학자들이 한 번 도 근대성/식민성이 삼쌍둥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월러스타인, 아리기, 벡, 지그문트 바우만 등은 근대의 출발은 17세기 말, 18세기 초 계몽주의의 출발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근대성/식민성의 출발은 15세기 말, 라틴아메리카의 등장부트로 볼 수 있다. 신대륙이 역사 속에서 출발한 직후이다. 근대과학이 헤게모니를 잡으면서 이를 모든 것을 설명하는 기획들은 '정치적 식민주의'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싶어하고 월러스타인, 벡, 하버마스, 기든스 등 모두 다 이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16-17세기는 유럽이 세계사의 변방에서 아메리카 신대륙에서 착취한 금, 은, 재화를 가져간 것을 기초로 유럽의 세계화를 진행하는 가운데 인도, 중국에서 상품을 사와서 자본을 마련한 것이었다. 따라서 근대성은 식민성과 한 몸이었고 근대성/식민성 연구집단 들은 근대성 문제를 다시 해석하고자 하면서 아메리카의 출생신고, 근대성 출생신고, 식민성 출생신고가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데카르트 식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아니라 “나는 정복한다 고로 존재한다”이며 근대적 주체는 정복하는 주체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근대성의 출발을 2-3세기 앞당겨서 해석하는 것이 근대성/식민성 연구집단의 문제의식이다.

근대성/식민성 연구그룹이 근대성의 문제를 식민성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공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이들이 비판, 투쟁은 하는데 '선택'은 무엇인가? 근대성 논의 자체에도 투쟁하는데 선택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투로 에스코바라는 콜롬비아 출신 미국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는 발전담론에 대해 포스트-발전주의를 논의하고 근대적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포스트가 하나의 척도가 아니라 universal에서 pluriversal를 논의하며 “모든 세계가 가능한 하나의 세계”와 같은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한다. 과연 이것이 정치한 이론으로 이야기되지만 구체적인 사례로 찾아지지 않으면 이것이 선택,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가?

저의 생각으로 '선택'의 부분은 안데스 쪽에서 볼 수 있다. 볼리비아에서 등장한 에보 모랄레스는 원주민 출신으로서 코카인 재배목수, 광산노동자였다가 코카인 재배자가 되었고 결국 노조를 형성해서 정치가로 성장하였다. 차베스도 등장하였고 라틴아메리카가 점차 구심점이 모아지는 상황에서 안데스 쪽의 상황들을 '선택'의 문제에서 대단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정치 헌법 변화가 중요한데 제헌의회를 소집, 발효하고 제헌헌법을 만들어서 국민투표로 통과시켜서 헌법을 변화시켰다. 베네수엘라 헌법은 볼리바리안 헌법이라고 하여 여러 가지를 담고자 하였다. 에콰도르, 볼리비아는 원주민들의 cosmology를 담았다는 것도 중요한데 유럽의 근대적 우주관, modern ontology, ontology는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즉, 근대에 등장한 존재론, 우리/그들의 분리, 자연/문화의 분리 등의 존재론에 대한 반대를 헌법에서 논의한 것이다. 라투르의 책의 마지막에서도 '헌법'이 나온다. 근대인들이 어떻게 헌법을 만들었는가? 근대적 사회 정치적 구조로서 헌법을 받아들여서 이는 고칠 수 없는 중대한 헌법으로 받아들였었는데, 이것을 바꿨다는 점이다. 그래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놀로는 에콰도르를 계속 방문하여 원주민들의 교육의 문제, 원주민 활동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논의하고 있는데 왜 원주민인가라고 물으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밖에 안 된다고 답할 수 밖에 없다.

인류학적 접근도 중요하고, 얼마 남지 않은 ‘외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놀로 등은 순전한 ‘외부’는 없고 원주민들을 이야기해도 본질주의는 아니라고 한다. 그들만 동떨어져 사는 ‘외부’를 찾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경계사유를 논의하고 있다. 척도를 가진 사람들은 질문을 하지 않고 결국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만이 자기의 것과 척도를 배우고자 하기 때문이다. 탈식민주의적 선택 등이 외부, 경계사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주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원주민들만이 아니라 다른 사유, 동양의 고전적 사유 등도 통하는 것이라고 본다. 원주민들을 거대담론을 통해 보면 그들의 실천적인 노력들이 부족해 보이고, 네그리와 같은 사람들은 유럽의 자유주의 운동을 적용하려고 하고, autonomy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석한다. 뭔가 틀을 갖고 보는 것이 유럽중심적 사유라고 생각한다. 원주민들 식의 대안이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 안데스적 국가들의 특징인 것 같다. 라투르가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으로 넘어가는 이유도 살펴보면 2009년 파리의 인류학 대회에서 프랑스의 필립 데콜라(Philippe Descola)라는 학자와 만나서 ‘perspectivism’을 논의하기 시작한다. 라투르는 “Ontology Hoy(ontology today)”라는 온라인 잡지에서 perspectivism이 하나의 type인가 bomb인가에 대한 글을 썼다. 필립 데콜라는 근대 우주관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애니미즘을 재해석하면서 인간/비인간 경계를 넘어서 근대적 우주관을 소통시키고자 하였다. 비베로스 카스트로(Viveiros de Castro)도 비슷한데 비베로스는 이는 ‘폭탄’이라고 한다. 아마존의 사례를 연구한 인류학자인데 근대적 우주관은 모든 문화권에서 다 인정하는 자연과학적 우주, 하나의 유일한 우주로 인정하고 다양한 우주들이 있다. 문화적 다양성은 동일한 우주, 실재를 다 다르게 보므로 다문화인데 이는 년센스이며, 그런 우주는 없고 다양한 자연이 있다고 주장. 비베로스가 말하는 아마존의 이야기는 모든 생명을 가진 전체, 비인간차원까지 가지 않고, 자연, 동물도 다 주체라고 주장한다. 동물성에서 인간성으로 진화된 것이 아니라 다 예전엔 동물도 인간이었는데, 근대적 자연으로 와서 그들을 ‘동물’ 차원으로 사고. 하나의 문화가 있고 다양한 자연이 있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multi-naturalism’을 논의한다. 그렇다면 현상학적인 것에서 모든 주체는 지향성이 있고, 인간이 동물과 사냥을 나가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인간들도 밥벌이 하러 사냥을 나가고 인류학적으로도 똑같이 해석될 수 있는데 주체성, 지향성을 가진 문화는 동물의 세계에도 존재하고, 그들은 우리가 똑같이 보는 자연을 다르게 본다. 결국 ‘몸’. 구현주의의 문제로서 몸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자연을 본다는 것이다. 문화는 다 똑같다. 라투르도 이를 폭탄이라고 함. 데콜라의 것도 중요한 인식의 전환이었으나 이를 더 넘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듯하다. 이것이 아마존의 원주민들의 세계관이라는 것을 해석해내고 있고, 학자들이 논의하길 안데스 쪽, 라틴아메리카 대륙 전체에 공통적, 공통의 것으로서 코스모폴리탄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결론적으로 ‘선택’의 문제, 라틴아메리카의 선택. 아마존에서의 선택이라고 본다면 이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이자벨 스텐저(Isabelle Stengers) 등은 ‘cosmopolitics’를 제시한다. cosmos+politics의 의미로서 cosmos는 근대적 사고만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반대이고, politics는 자연도 권리를 갖는 정치의 장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안데스 원주민들의 코스모 폴리틱이라고 논의하기도 한다.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투쟁과 선택, 여러 상황과 역사적 배경, 정치 문화적 배경 등이 다 달라서 ‘원주민’이라는 말도 서로 다른 원주민들, 언어만 다른 원주민들이 있다. 우리는 유럽인들이 신대륙 점령 이후엔 다 원주민이라고 명명하였지만 다양한 다차원적, 복합적으로 되어있는 상황이고 선택의 문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 같다. 라틴아메리카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고, 관심과 주목이 안데스 등으로 향해있다. 레비스트로스 등이 구조주의를 논의하면서 인류학은 중대한 업적을 가져왔다고 하는데 라투르의 이야기

처럼 본토로 돌아온 인류학이 해야 할 일은 결국 우리/그들의 이분법은 되지 않는 이분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올리히 벅이 “타자들의 진리를 포착하는 방식”이라고 했다가 라투르에게 이는 하나의 근대적 우주를 인정하는 것이고, 당신이 이야기하는 우주는 무엇인가라고 비판을 받았다. 라틴아메리카에서도 미약해보이지만 헌법을 바꾸고, 정치사회적 실천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강연의 제목이 ‘주변의 이론’ 모색이 아니라 사실 플루리버스 이론의 모색이라고 바꿔주기를 요청한다. 레비스트로스의 <슬픈 열대>의 앞부분에서 1450년 세풀베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와 도미니크 수도회의 논쟁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들은 원주민들을 보고 이들이 영혼을 갖고 있는지 논쟁을 벌였었는데 레비스트로스는 그 당시 신대륙에서는 원주민들이 유럽인들을 잡아서 익사시키는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들이 죽는지 안 죽는지를 지켜보고 죽은 뒤에 썩는지 안 썩는지를 지켜봤다는 것이다. 유럽인들을 원주민들을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정치적, 문화적으로 본 반면, 원주민들은 인간도 동물도 영혼이 다 있다고 보았고 이들이 몸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았다. 오히려 원주민들이 자연과학적으로 접근했다는 역설을 보여준다. 데콜로, 라투르가 다시 이를 이야기 하는 것처럼 몸이 중요한 것이지 영혼이 중요한지 아닌지 따지는 것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근대인들은 자연 이후의 것을 초자연으로 넘기고, 자연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초자연(super-natural)은 종교로 넘겼고, 원주민을 ‘인간’으로 안보고 ‘동물성’으로 내려놓았다. 초자연/자연, 인간/동물 이런 식으로 구분하였다.

<토론>

전재성: 동아시아의 국제정치학자로서 우리야말로 포스트옥시덴탈 이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대안적인 지식세계, 우주론이라는 것까지 고민이 잘 안 미치고 있다. 여전히 서구중심주의를 비판하는 이론체계를 또 서구에서 가져와야 하는 것을 막 느끼고 있는 참이었다. 라틴아메리카의 생각의 깊이를 더 알게 되었다. 원주민이라는 카테고리 라틴적인 것이 아니라 안데스적이라고 하졌는데 그것이 보존되어 있는 게 놀라웠다. 아시아인은 제국주의 이전, 이후가 구분이 안 된다. 라틴아메리카에 있는 해방신학이나 종속이론보다 더 깊은 단계의 탈서구, 탈근대 등 논의해주셨는데 충격적인 부분도 있었고, 중동, 아프리카의 국제정치도 간혹 보긴 하는데 공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라틴아메리카만이 아니라 두루 이야기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이헌미: 발표 마지막 부분에서 왜 원주민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셨는데 결국 얼마 남지 않은 제국의 ‘외부’이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여러 질문이 생겼는데 그럼 원주민이 누구인가? 라틴 아메리카, 남미라는 이름 자체. 밖에서 주어진 이름일 것 같고 역사적으로 자기정체성의 영역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고 라틴아메리카 내부에서도 이해관계, 역사적으로 분열, 갈등의 지점들이 많이 존재할 것 같다. 라틴아메리카, 남미. 밖에서 규정한 것이기도 그렇고 자기정체성도 그렇고 원주민은 누구인가? 국가별 여러 원주민들이 존재하는데 이전이 nation이 종속인가, 사회적인 것, 법적인가의 논쟁처럼 이를 어떻게 봐야하는가? 원주민은 많은가? 일종의 대안을 위한, 대안의 실천적 기획으로서 통합의 상징인가? 해방과 실천의 주체인가? 헌법으로 명기되었다는 것은 의미도 사실 19세기 동아시아 한국에서도 명목적인 헌법이 많았다.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사회적 혼란 속에서 의미가 있지만 원주민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은중: 미놀로의 책 제목은 <라틴아메리카: 만들어진 대륙>인데 원제는 “The Idea of Latin America”이다. ‘라틴성’의 문제는 19세기 크리올리의 계급이 자유주의적 정체성으로 확보한 이름이었고 잘못된 이름이었다는 것이다. 원주민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물질주의적으로 접근하는 방식도 있다. 원주민에 대해서 문화적 다양성의 정도가 아니라 토지개념으로 이야기된다. 아이유의 토지제도에 대해 메소 아메리카에서는 공동 토지제도라고 이야기한다. 관리나 이윤 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적이고 소유는 공동이다. territoriality라는 것이 중요한 경작, 재배의 측면에서 인간/비인간 포함, 우주론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본다. ‘영토성’ 개념을 유물론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원주민에 대해서도 피부색으로 원주민을 논의하는 혼란도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혼혈’이라는 것, 자기를 ‘백인’이라고 규정하는 문제인데 ‘라틴’이라는 이름자체가 잘못된 이름이고 정치경제적, 사회적 부작용이나 모순 등을 담고 있다. 원주민성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인식론적 측면도 중요하다. 원주민 출신 인류학자에 의하면 마추픽추에 가서 관광안내인 하는 사람은 자본주의적으로 사는데 과연 내가 보는 마추픽추가 그와 보는 것과 같은가 아닌가? 그렇다, 아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 관광자원으로 사는데 당신이 보는 마추픽추는 다르다. 영적이거나, 샤먼 개념 여전히 중요하고 그런 접근 방식이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로서 그들이 그렇다고 해도 샤먼 개념을 모르거나, 그것으로 우리의 개념을 바꾸지 않으면 유효성이 없어진다. 유물론적 관점에서의 아이유 토지제도에 대한 것, 원주민적 삶의 방식 등 그런 것으로 원주민성을 포착하는 학자들이 많다. 페루의 경우는 원주민의 비율이 크다. 에콰도르 볼리비아는 20세기 후반 이후 경로가 틀리고 사회, 정치, 경제적 문화변동이 상이하다. 그곳의 원주민들은 19-20세기 동안 다 포섭되었다. 그러므로 볼리비아가 알토-페루 루로서 페루에 속한 지역이었으나 3500-600년 되는 동안 척박한 상황에서 유지되었다. 결론적으로 여러 관점들이 있지만 원주민의 문제는 인종성의 문제가 아니고, 유물론적 관점에서 우주관으로 확장시키려고 하지 않는가 생각한다. 사파티스타와 멕시코 원주민의 상황도 매우 다른 상황이다.

조은정: 안보연구에서 Ken Booth라는 비판이론가는 emancipation, ‘해방’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인간안보 등을 논의한다. theory of liberation이라는 말, 해방의 말을 하는데 번역을 하면 emancipation도 같다. 논의에서 emancipation과 liberation의 말의 차이를 두고 있는가? 제가 이해했을 때 emancipation은 식민성을 염두하지 않은 서구 중심적 근대 안에서의 해방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외의 것을 논의하고 있는 것인지?

김은중: 해방철학은 philosophy of liberation을 번역한 것이다. emancipation은 중세적 세계관에서의 해방이자 근대적 주체의 등장으로 본다. 반면 우리는 식민성으로 벗어나지 못했고 학적 사유도 그렇고 인식론적, 정치경제적 종속뿐만 아니라 인식론적으로 해방되지 못했다. 그래서 emancipation이 아니라 liberation이라고 생각한 듯하다.

조은정: emancipation이 라틴아메리카의 관점에서 해방과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Ken Booth에게 물어봤을 때 자기 생각의 기원을 사회주의, 급진주의, 비판이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한 적이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해방신학의 원래 동기와 흡사하지 않을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접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김은중: 두셀도 원래 종교학 전공하다가 철학을 가서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을 듯하다. 자

유는 liberty인가? 라틴 아메리카 연구자들은 두셀의 해방철학 번역도 제대로 못했다. 두셀에 의하면 liberation을 과정적인 개념으로 쓴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이 더 되면 emancipation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일 수도 있는 것 같다.

조은정: 논문에서는 근대성/식민성이 삼쌍둥이와 같다고 논의하셨고 탈식민성까지 적어도 세 개의 머리가 있다고 하셨는데 탈식민성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주실 수 있는가?

김은중: 근대성/식민지 연구그룹은 근대성, 아메리카, 식민주의가 세 쌍둥이로 태어났다고 한다. 사실 탈식민성은 포스트-콜로니얼리즘과 구별이 안 된다고 보고 포스트-콜로니얼리즘 학자들도 라틴아메리카 무시하고 라틴아메리카 학자들도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무시하는 상황이다. 하위주체 연구 등으로 포스트 콜로니얼리즘과 서발턴 연구로 갈라졌고 미국의 학자들 중심으로 수입되어서 라틴아메리카에 들어왔다. 하위주체가 등장한 90년대 초, 라틴 사회변동 시작되면서 다 하위주체 연구에 있다가 여기서 분화된 것이다. 하위주체 연구의 중심에서 하위주체 운동 방향이 상실했다는 평가에 따라 근대성/식민성 연구로 나가게 되었다. 이들의 이름은 근대성/식민성/탈식민성 연구그룹은 아니고 modernity-coloniality의 연구이다. 그리고 이는 선택의 연구로 나가는데 두셀, 켈롱, 미놀로 등으로 다 갈라지게 되었다. 코스모폴리탄 등 선택의 문제로서 공통적인 것 이야기를 하는데 cosmo-polity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라투르의 이야기는 cosmopolity인데 미놀로의 이야기에 라투르의 글은 없다. 왜 이 이야기를 안 할까도 질문이다. 선택의 문제를 찾아가는데 원주민성의 문제와 에콰도르, 볼리비아의 정치변동이 일어나면서 지식인들이 다시 담론들이라고 만든 것인데 실천적인 것들을 보고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탈식민성은 motto of slogan이고 대안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와 연결된다. 미놀로는 de-colonial을 de-link, 'leaning to unlearn' 등을 이야기한다. 인식론이 너무 다 우리를 사로잡아서 해석학, 현상학적 틀을 다 가져와도 판단 중지 어렵고, 그런 문제들을 다 논의하면서 우리가 떨어져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이 외부냐? 트랜스 모더니티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진리라는 말 대신 '일리'라는 말을 쓴다. 유럽중심적 사고는 다 진리를 자초하는데 원주민성은 낭만적인 것도, 국지적, 본질주의적인 것도 아닌 '일리'라고 한다. 즉 어떤 맥락에 들어맞는 이치라는 것이다. 일리들은 일리들의 지평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는 아니다. 이치 없음은 아니다. 여러 일리들이 situated knowledge, 자신의 입장. position of enunciation, 내가 보는 위치 등에 기반 하여 존재한다고 본다. 구현의 문제를 왜 몸으로 다가가는지에 대해서 몸 철학의 논의들도 진행 중이다. 그런 문제들이 다 같은 지점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헌미: 원주민이 사회변동의 핵심적인데 원주민이 가진 윤리적 우월성이 뭘까 의문이 든다. 진리가 아닌 일리라는 것은 있는데 순혈, 매력, 설득력? 새로운 자산? 순혈은 아니고 가난? 전통적 계급의 문제랑 연동이 되어있는지가 궁금하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으로서 가난은 중요한 윤리적 우월성으로도 볼 수 있고 또한 반폭력성도 있다. 근대는 정복의 주체라고 말씀 하셨는데 식민이라는 것은 피정복의 주체이다. 과연 이들이 국민국가 안에서 정치권력으로서 통합성 가질 수 있는가? 원주민 이외의 계급 등을 생각해보면 기존의 엘리트들이나 남미에 있는 비원주민들과 원주민들의 삶을 구분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 통합적인 삶은 있는가? 그런 일리로서 de-link될 것을 극복하고 있다면? 또한 신자유주의에 부과되는 기계로부터 사는 것을

극복하고 몸을 사는 것이 핵심적인 주장인데.. 그렇다면 정치는 계속 되어야 하고 결국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하는가?

김은중: 그런 문제는 연구소에서도 개인적으로도 갈등의 문제이다. 과연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논문에서 어떤 학자는 좌파가 전지구적으로 소멸되었지만 '전지구적 좌파'는 이제 등장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대안'이라는 말도 발전주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대안은 지금의 것을 다 버리고 바꿀 수 있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듯하고 사회주의가 실패하고 또 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대안에 대한 대안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한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원주민들에게 우리의 대안으로서 받아들여려고 하는 것인가? 원주민들의 윤리라는 것의 문제. 율리히 벡은 타자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서 보편주의는 두 개의 얼굴이라고 한다. 보편주의, 상대주의도 문제가 있다. 사실은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관점주의는 상대주의 내에 모두 자기 몸을 갖고 자기가 이야기하는 multi-naturality 아닌가? 비베로스는 이는 상대주의가 아니라고 함. 보편주의의 문제가 부딪친 것은 알고 문화적 상대주의로 넘어가도 또 다시 우리가 다 합일할 수 있는 자연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 상대주의인데 이는 답이 없다고 본다. 내셔널리즘, 애니미즘은? 라투르는 지금 우리는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이야기한다고 한다. 왜 평화상태를 이야기하는가? 이는 헤게모니 잡은 사람들의 이야기이지 사실 전쟁상태다. 원주민들의 삶을 보고 perspectivism을 이야기하지만 과연 원주민들이 persepectivism을 알까? 우리는 그들이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근대적 우주관을 온전히 습득하지 못한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아닐까 생각한다. 여전히 우주관을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는 윤리의 문제는 아니지만 다만 뭔가를 이야기할 때 개념화 작용이나 인식적 측면에서 너무 다 빨려 들어가고자 하는 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학자들이 라틴 아메리카를 가면 monism과 dualism이 부딪친다고 하는데 사실은 monism과 pluralism이 부딪치고 있다. monism이 뭔지 우리는 절대 모르고 이원론에서 끊임없이 부딪치는 중이다. 그 사람들은 아예 그것이 없다. 그 사람들의 사고를 신 자유주의적인 걸로 접근하기도 하는데 이는 아니라고 본다.

옥창준: 랑시에르, 아감벤 등이 경계선 상의 사유를 하고 있다는 것 정도만 이야기했고, 미놀로 등의 책을 보면 이 이야기들이 라틴아메리카에 이전부터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경계선 상의 사유를 서구를 통해서 봐야하는 것 등이 충격이었고 라틴아메리카도 잘 알아야겠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중적으로 소외되었다고 생각한다. 선생님께서 라틴아메리카의 연구 집단과 그들의 사유들을 볼 때 한국인으로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해하는데 있어서 한국, 동아시아의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라틴아메리카와 같지는 않지만 서구적 논리로 설명 안 되는 부분이 많고 공명하는 지점들이 있을 듯하다. 한국을 이해하는데 라틴아메리카가 도움 되는 점은 무엇인가?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이론적 실천들이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고 여러 학문 분과에서 다차원적으로 진행 중인데 동아시아의 현재의 이론 수준, 서구 중심주의 비판 수준에 그치고 있고 경계선 상의 사유가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못하는 듯하다. 미놀로가 왔을 때도 라틴아메리카와 동아시아 다르며 동아시아에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중심 등장하는 상황이고 너희들이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고 하였다. 선생님은 라틴아메리카와 동아시아의 차이라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을 감지하고 계시는가?

김은중: 라틴아메리카 연구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라틴아메리카 연구소에서 획기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엔 지역연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부터 고민이 시작되었다. 한국과 20세기 동아시아 역사 등에 대해서 한국 사람임에도 잘 모르지만 대안의 모색의 문제로는 라틴아메리카가 더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동양철학도 공부하려고 애를 썼고, 몸 철학 글도 읽고 했다. 김용옥 선생이 하는 작업도 결국 동양고전의 번역인데 고전번역을 단순히 언어의 옮김이 아니라 의미의 옮김에서 자신의 총력, 주해를 다는 번역을 하더라. 왜 그런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라틴아메리카의 원주민성에서 배울 수 있는 전근대적 ontology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 맥락으로 우리 안에서 그네들을 공부하는 것이 어떻게 적용되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정치, 경제는 모르겠고 대한민국에서 라틴아메리카에 대해 잘못된 해석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포퓰리즘은 아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생각하는 정치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하지만 적용, 대안의 모색 등은 정말 어렵다. 동양의 고전과의 접목을 공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까 이야기한 라틴 아메리카의 상황들을 기존의 전통적 사회과학으로 설명가능한지 물으면 가능하지 않다. 포스트-자본주의, 포스트-신자유주의, 포스트- 등은 “그건 아니다”의 전제가 깔려있다.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의 서양바라기는 더욱 더 심하다. 그래서 라틴아메리카의 근대성/식민성 연구 부분이 눈에 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이제 막 시작한 단계이다. 라틴아메리카의 경제는 경제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이야기하면서 라틴아메리카 경제는 파산 중, 정치는 포퓰리즘 이런 식으로밖에 설명 못하는 단계였다. 종속이론도 문제의 비판은 했지만 대안은 아니다.

전재성: 몇 가지 생각한 코멘트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원주민 우주론, 우주의 관계주의 등 존재론적 기반과 그에서 유추된 인간의 삶, 제도가 한 세트로 움직인다. 흙스도 기계론적, 유물론적 물질관과 개인주의, 소유 중심의 정치제도, 자본주의가 세트로 간다. 원주민의 insight나 전통적인 우주론을 지금의 원주민들이 그런 것은 아닐 수 있으나, 우주를 실제로 그렇게 느끼는 인식론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몸 등. 그런 유기체적, holistic한 우주론이 사회제도, 인간관과 연결되고 그 다음에 제도적인 측면으로 구현되어야 한 세트인데 지금 인간 문명의 상황은 holistic한 우주론이 완전히 보편화되기에는 자연과학 수준도 그 수준까지 못 간 단계이다. 하지만 상당히 그런 연구들이 진행 중인 듯 하고 뇌 과학, 인지과학 등에서도 몸의 경계, personal identity가 원자론적이 아니고 유기체적이라고 보는 시각들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학적 유용성까지 제시하지 못하면 지금의 세계사 장악하긴 어려울 듯하다. 포스트모던, 트랜스 모던 등 과학도 기계적 우주론을 넘어선 사회질서를 요구할 것이다. “Rise of Premodernity”인데, 유럽 근대성이 망가뜨린 인간의 공동체주의적, 연결주의적 부분이 회복될 단초도 과학주의적 배경도 있어야 만들어질 수 있을 듯하다. 어쨌든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문명적 자원을 상당히 가진 것 같다.

그리고 폭력 질서에 대한 생각이다. 국제정치학계에서는 외교학과의 동주 이용희 선생에 의하면 근대국가를 군사국가, 경제국가, 식민지 국가라고 정의하였다. 근대국가는 필연적으로 식민지성을 갖고 있다. 경제적인 식민지성도 있는데 국제정치는 폭력질서를 강조한다. 국제정치는 얼핏 보기엔 형식적 주권을 가진 평등한 질서인 듯 하지만 그것을 내세워서 폭력으로 약소국을 옹매는, 실질적인 위계성을 유지하고 있고 식민성과 메트로폴리탄의 대립만이 아니라 식민성과 촘촘히 얽힌 폭력질서가 존재하고 있다. 두 개가 유기적 관계를 이루면서 서구 중심적 근대를 유기적으로 만들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국제정치연구 사례들을 보는 중에 왜 이 국가들끼리는 전쟁을 안 할까 의문이 든 적이 있었다. 몇몇 국가들은 핵무기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라틴아메리카 발 탈식민지성이 시사점을 주는데, 폭력성의 모순이 그렇게 심한 것처럼 안 보인다. 근대의 모순을 한 쪽으로 치중해서 봤기 때문에 라틴아메리카에서 덜 와닿는 것이 아닌가. 동아시아의 국제질서의 위계성은 미국 중심의 군사질서가 강하다. 국제정치적 근대의 극복은 폭력, territoriality, 군사적 자원과 인간을 배타적으로 연결하는 끈이다. 땅을 공유할 수 없는 것, 폭력질서의 부분에 대한 부분도 라틴아메리카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중동, 아시아 등은 폭력문제 치열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라틴아메리카는 왜 비교적 평화로울까?

마지막으로 한편으로 한국에서 이렇게 식민지성을 고민하시는 게 경이로운 부분이 있다. 10학년 세대만 해도 우리나라는 더 이상 '주변'에 있지 않고 선진국의 시민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식민지적 모순의 담지자가 아니라서 이를 유럽의 지식인들도 보면 저 사람들도 모순의 피해자, 지식의 orientation이 가진 자 쪽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처럼 저쪽에서는 식민지성의 경험기반이 생활세계에 없어서 보편적 기반으로 어떻게 사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덜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김은중: 라투르가 <우리는 결코 근대인인 적이 없었다>에서 결국 저쪽도 '분리'된 게 아니라 hybrid들이 있다고 한다. 라투르의 말을 받아들이면 서구도 하이브리드들이 엄청나게 많다. 들뢰즈도 '기계'라는 말을 그래서 쓰지 않았나 생각한다. 라틴아메리카의 holistic한 우주관도 그 쪽보다 분리되지 않은 사람, 그 쪽에도 하이브리드는 있다는 것이다. premodern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가? 라투르는 규모의 차이라고 이야기한다. 양 극단을 나눠서 수직으로 나눌 때 양 극단으로 연결하는 규모가 유럽은 훨씬 커진 것이고, 이쪽은 적다. 그런 문제로서 라틴아메리카의 원주민성에서 포착할 수 있는 인류학적 성찰의 문제라면 규모의 문제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본다. 규모의 문제 속에서 구체적인 토지의 문제로 여전히 삶을 유지한 것이 아닌가...

폭력의 문제도 라틴 아메리카는 겉으로 보기엔 전쟁이 없어 보이는데 더 고질적으로 '식민성'이 크게 평가받는다. 그리고 구조적인 classification으로서 심층적인 인종주의가 사회적 변동이 일어날 만큼 깊게 깔려있다. 또한 라틴 아메리카는 과두 지배체제인데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에 대해서도 민중의 이름을 건 폭력의 문제 등, 수백 년 지속된 과두 지배체제에 대해서도 잘 이야기되지 않는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전쟁으로 본 내셔널리티 형성의 문제를 봐도 사실 19세기는 다 전쟁이었다. 20세기는 전쟁이 없는데 미국의 뒷마당으로 전략한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구조적 인종주의의 문제가 깔려있지만 사회적으로 평온해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안에 제국주의가 있다. 브라질 다국적 기업의 제국주의는 그 안에 내부적으로 보면 내부적 제국주의가 있다. 이는 세분화시켜서 봐야하지만 그런 세 문제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폭력 문제도 단순하지 않다. 차베스는 1990년대 이후 등장하면서 지역통합을 논의하면서 이를 라틴아메리카가 살 길이라고 선언하였다. 지역통합의 역학관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500년 역사를 논의하면서 과두지배체제에서 지역통합의 문제를 뛰어 넘는, 밑으로 부터의 혁명을 받아들이는 관점에서의 지역통합 문제로 볼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 태평양 동맹 등은 라틴아메리카의 동맹을 견제하고 탄지를 거는 것이고 정치경제적 동맹의 문제가 아니라 차베스가 카리스마를 갖고 이런 문제를 실천적으로 보려는 시도였다고 생각하는데 안타깝게 일찍 좌절된 한계가 있었다.